

익산시족구협회, “전북도민체전 족구 우승 쾌거”

14개 시·군 참여 ... 익산시 우승·부안군 준우승·전주시 3위 상장 트로피 등 수여받아

익산시족구협회(회장 왕경배)는 “전라북도 체육회 주최, 고창군체육회와 전북종목단체 주관으로 제56회 전북도민체전 족구부문에서 익산시 최초로 익산시 도민대표로 우승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날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웅비하는 천년 전북! 대회 구호를 힘껏 외치면서 지난 11일부터 12일 양일간 예선 풀 리그전 및 본선 토너먼트 경기를 치열하게 치른 결과, 익산시 우승, 부안군 준우승, 전주시 3위 성적의 영예를 거두면서 익산시 도민대표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는 쾌거를 거머쥐었다.

이 경기에 참여 및 관람자는 14개 시·군 200여 명 선수와 임원, 도민 및 지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지면서 1박 2일간 치열하고 공정한 경기를 해 우승을 거둔 뒤 상장, 트로피 및 상품 등을 영광스럽게 수여받았다.

한편, 왕경배 익산시족구협회 회장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 모두가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함께 즐겁고 화합을 다지는 1박 2일간 축제의 장이 된 것 같으며 전북도민체전 참가한 이래 최초로 익산시 도민대표로 참가해서 우승을 한 것은 익산시장과 익산시민들의 성원과 뜨거운 응원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심히 감사드린다”고 했고 또 “향후 익산시족구협



익산시족구협회는 제56회 전북도민체전 족구부문에서 익산시 최초로 익산시 도민대표로 우승을 했다.

회와 동우회 등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고 더 큰 대회에 참가해서 익산시족구협회의 잠재력을 드높일 수 있도록 익산시와 익산시체육회 등의 더 많은 관심, 지원 및 성원 등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게다가 익산시족구협회는 익산시장배, 천만송이 국화축제배 및 익산시장배 등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인 족구운동 저변확산을 위한 많은 대회유치 활동 및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 완주 진달래학교 2500만원 지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가 완주군 성인문해 진달래학교(진짜 달콤한 내인생을 꿈꾸는 학교)를 지원하고 나섰다.

15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는 완주군을 방문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진달래학교 지원사업에 성금 25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신승재 현대자동차 전주 총무팀장과 배철수 노조 전주공장위원회 부의장, 정동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박명선 완주 진달래학교 학습자 대표가 참석했다.

완주군은 전달받은 성금 전액을 진달래학교 학습자들의 정서적인 감수성을 높이는 문화 프로그램인 ▲영화&소풍 나들이와 현대차 기념품(손뼉끼 예코텀블러) ▲영상미디어 체험 활동 ▲문화골든벨 참가상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영화&소풍나들이는 완주미디어센터와 협력해 어르신들이 웃고 즐길 수 있는 판타지 휴먼 코미디 영화 <수상한 그녀> 관람 후 고산자연휴양림 숲속 정자에서 아의 캠프 음식을 함께 나누며 소풍 나들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화&소풍 나들이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13까지 9회차에 걸쳐 일정별로 진행하게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진달래학교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에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이 배움과 인생의 재미를 느끼고 학습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는 2018년에도 완주 진달래학교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수제 책가방 282개를 제작하고, 경로당반에 어르신 좌식의자 110개를 구입 전달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농촌봉사 활동 나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15일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효동불 마을)에서 농번기 일손돕기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재단 직원 30여명이 참가한 이날 활동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 잡초 제거와 마을 주변 오물 및 생활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농촌봉사 및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한 재단 이승연 주임은 “지역 농민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고 봉사하는 지리에 참가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향후에도 농촌봉사활동 등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농협 임원단, 산불피해복구 성금 전달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 이사회는 대형 산불로 재난을 당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지역 피해 농업인과 도민의 구호활동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기로 의결하고 최근 100만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였다.

이정용 조합장은 “갑작스런 화재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강원도민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영농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작은 성성이지만 피해 농업인과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새마을문고, 시·군회장과 역사·문학기행

새마을문고전라북도지부(회장 정영대)는 15일 ‘2019년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펼쳤다고 밝혔다. ‘2019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새마을문고중앙회,

대신타백 후원으로 40여명의 시·군 회장과 함께 남원의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과 전남보성 태백산맥문학관을 찾아 문학작품의 다양한 배경과 작품의도 등을 알아보는 사업이다.

또한, 역사의를 고취하는 등 나라사랑 정신과 독서생활화에 관심을 높이고 새로 구성된 문고 회원간 화합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새마을문고는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청소년 문학캠프, 문학기행’ 등 새마을 독서문화공간을 거점으로, 다양한 생활맞춤형 독서문화운동을 해마다 펼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장수군 산림조합, 백두대간 환경정화 활동 실시

장수군산림조합(조합장 한상대)은 최근 백두대간보호활동의 일환으로봉화산 매봉 일대에서 환경정화운동을 실시했다. 이들은 봉화산을 찾는 지역민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주변 곳곳을 돌며 쓰레기 줍기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한상대 조합장은 “봉화산일대가 한결 청결해져서 더 좋은 환경에서 등산 및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지역을 우리 힘으로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09년 1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886-6874	남원지사 622-389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요지지사 010-8845-9855	팔백지사 253-6944	남원지사 652-0965	정읍지사 538-3787
	곡산지사 010-6789-020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59-92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